

/ 출 / 제 / 문 / 제 /

문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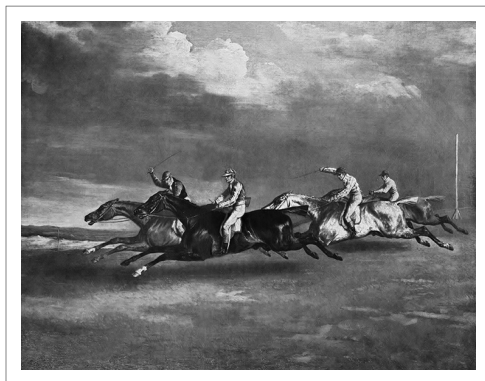
제시문 [가], [나], [다]를 활용하여 <보기 1>의 ㉠과 같은 반응이 나온 이유를 설명하시오.(700±70자, 40점)

문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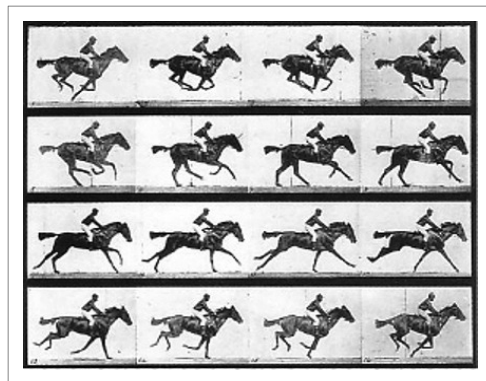
<보기 1>의 ㉠과 같은 반응이 현대 사회에서 <보기 2>의 ㉡과 같은 집단 광기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매체의 정보 생산 및 수용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 [마], [바], [사]를 근거로 논술하시오.(800±80자, 60점)

<보기 1>

사람들은 오랜 기간 말이 질주하는 것을 보아 왔고 경마와 사냥을 했으며 말들이 싸움터로 질주하거나 사냥개의 뒤를 쫓는 그림을 보아 왔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말이 달릴 때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가’를 눈여겨본 사람은 없었다. 19세기의 유명한 화가 테오도르 제리코가 그린 ‘엡숨의 경마’(<도판 1>)와 같이, 당시의 그림이나 스포츠 해설 그림은 거의가 달리는 말들이 네 다리를 짝 뺀고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약 50년쯤 뒤에 말이 질주하는 순간을 포착하여 촬영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카메라가 등장하자 화가와 관객들 모두 그때까지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음이 증명되었다. 달리는 말은 우리에게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이는 자세로 움직이지 않았다. 사진은 말이 차례로 다리를 땅에서 떼었다가 다시 내린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도판 2>). 우리는 잠깐만 생각해 보아도 말이 이와 다르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나 화가들이 이 새로운 발견을 그들의 그림에 적용해서 말들이 실제로 달릴 때의 모습처럼 그리자, ㉠사람들은 그 그림이 잘못되었다고 불평했다.



<도판 1> 제리코, ‘엡숨의 경마’
(유화, 1821년)



<도판 2> 메이브리지, ‘달리는 말의 동작’
(연속 사진, 1872년)

<보기 2>

인간의 지성은 갈수록 발달하고 사회는 더욱 문명화되는 것일까? 만일 그랬다면 지금쯤 우리는 지상 낙원에서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을 것이며, 비참한 탄압과 야만적인 전쟁 같은 것은 아예 사라졌을 것이다. ㉡마녀사냥과 같은 현상을 보노라면 우리 마음속에 집단 광기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하게 된다. 마녀사냥은 그 모습 그대로는 근대 초

유럽의 특이한 현상이지만 유사한 현상은 언제나 있었다. 특히나 위험이 닥친 사회일수록 집단 광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역사는 보여준다. 위험을 야기하고 사회를 위협하는 불순한 세력! 그것은 히틀러에게는 유대인이었고, 파시스트들에게는 공산주의자들이었다. 때로 권력은 일부러 그런 위험 세력을 조작해 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위기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런 조작이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내면에 '마녀사냥'식의 충동이 잠재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제시문 [가]

과학자인 웨리프는 흥미로운 실험을 고안하였다. 그는 깜깜한 방 안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그곳에 빛을 쬐서 움직이게 한 다음, 그 빛이 얼마큼 움직였는지를 맞추는 실험을 하였다. 어두운 곳에서는 상대적인 거리감이 없으므로 그 빛이 얼마큼 움직였는지를 단지 주관적으로 추측할 뿐이다. 어떤 사람은 몇 센티미터, 어떤 사람은 수십 센티미터 움직인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집단으로 묶어서 같은 실험을 하자 다른 결과가 나왔다. 상대방의 추측을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품었던 응답을 바꾸었고, 결국 비슷한 추측 치로 의견이 모였다. 집단 간의 차이는 여전히 있었지만, 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값으로 빛의 움직임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서 벗어나기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제 정세에 어두운 사람들을 모아 놓고, 유엔에 가입한 나라의 숫자를 알아맞히게 한 실험도 있다. 한 사람이 큰 목소리로 90개국이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의 추측도 대개 90이라는 숫자 주변을 맴돈다. 이러한 현상을 어느 심리학자는 '달의 효과'라고 부른다. 처음 누군가의 추측이 달을 내리면 다른 사람들의 추측도 이 달 주변에서 맴돌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사람이 왼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오른쪽을 선택하면, 그 선택의 영향을 받아 자신도 오른쪽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집단으로 모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내린 합리적인 판단과는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제시문 [나]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하였다. 그들은 흰옷과 검은 옷을 입은 학생 여러 명을 두 조로 나누어 같은 조끼리만 이리저리 농구공을 주고받게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그리고 이를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이렇게 주문하였다. “검은 옷을 입은 조는 무시하고 흰옷을 입은 조의 패스 횟수만 세어 주세요.”라고. 동영상은 1분 남짓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흰옷을 입은 조의 패스 횟수를 맞히는 데 성공하였다. 사실 실험의 목적은 따로 있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 준 동영상 중간에는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한 학생이 걸어 나와 가슴을 치고 퇴장하는 장면이 무려 9초에 걸쳐 등장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동영상을 본 사람들 중 절반은 자신이 고릴라를 보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고릴라를 알아보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도대체 왜 이들은 고릴라를 보지 못한 것일까?

뇌의 많은 영역이 오로지 시각이라는 감각 하나에 배정되어 있음에도, 세상은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눈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를 뇌가 빠짐없이 처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뇌가 선택한 전략은 선택과 집중, 적당한 무시와 융통성이다. 우리는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눈에 뵈어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다. 즉, 우리는 정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에는 눈을 질끈 감는 것이다.

제시문 [다]

여러분이 친구들과 캠핑을 떠났다. 텐트를 치고 잠시 놀러 나갔다 와 보니, 텐트는 온통 난장판이 되어 있고, 땅에는 발자국이 있다. 쫓아가면 곰을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발자국을 따라갔다. 그런데 남쪽으로 10킬로미터를 쫓고, 다시 동쪽으로 10킬로미터를 쫓고, 또다시 북쪽으로 10킬로미터를 쫓았는데, 원래 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여기서 질문. 이 곰의 색깔은 무엇일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이 곰은 흰색이다. 지구상에서 남쪽으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각각 10킬로미터를 이동했을 때 제자리인 곳은 바로 북극이다. 북극곰은 두말할 것 없이 흰색이다.

이 문제가 흥미로운 까닭은 바로 생각의 틀을 깨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3차원적인 위치를 표현할 때 보통 '직교 좌표계'를 쓴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직교 좌표계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이다. 그 대신 '구 좌표계'를 머릿속에 떠올린다면, 즉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생각의 틀을 깨면, 이 문제는 무척이나 쉽게 풀린다.

제시문 [라]

감각을 확장하는 매체는 감각 간의 불균형을 일으키게 된다. 예를 들어, 알파벳과 인쇄술은 사람의 말을 시각적인 부호로 전달하면서 귀 대신 눈이 지배하는 새로운 감각 비율을 만든다. 구어 문화에서는 듣는 것이 믿는 것이었는데, 문자 문화에서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 된다. 인간의 감각 기관은 매체가 형성하는 감각 간 불균형을 완화하며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감각의 마비 상태를 일으키는데, 인간은 매체가 만든 지각 환경을 현실이라고 받아들인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사건을 보도할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사건이나 쟁점에 관심을 두고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이 과정에서 매체 자료를 생산하는 주체의 관점과 가치가 작용한다. 기사 하나를 예로 들어 보자. 2005년 뉴올리언스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이 집과 식량을 잃었다. 이때 미국의 두 언론사가 비슷한 사진 장면에 대한 머리기사를 상반되게 작성하여 눈길을 끌었다. 두 사진은 모두 편의점에서 식량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인데, 흑인이 등장하는 곳에서는 식품 '약탈'로 표현하고 백인이 등장하는 곳에서는 식품 '발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제시문 [마]

오늘날 디지털 기술은 모바일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이 주류를 이루었던 과거 미디어 환경과 달리 모바일 환경에서는 정부, 기업, 대학과 같은 기관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도 미디어 정보와 콘텐츠를 생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전파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모바일 환경은 더욱 참여적이고 개방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지만, 왜곡된 정보나 가짜 뉴스가 무분별하게 생산·유통되는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은 정보 생산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 기준인데, 1인 미디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바일 정보 생태계에서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보 생산자는 이러한 가치 기준은 외면한 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자극적인 소재나 조회수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제시문 [바]

위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어떤가? 인간은 위험의 발생 원인을 타자로 돌림으로써 비난과 책임을 피하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 ‘타자’는 일반적으로 지배 집단 밖에 있고 암묵적으로 지배 집단에 종속된 자들을 포함한 어휘이다. 이 ‘타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되어 지배 집단의 구성원이 도덕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문화의 바깥에 두어졌다. 사람들은 자신을 전염병으로부터 분리하고, 그 전염병의 원인을 특정한 ‘타자’에 위치시킨다. 집단에 의해 전염병을 일으켰다고 간주된 타자들은 불순하고 혐오스런 존재로 배척된다. 집단의 구성원들은 타자에 대한 차별적 의식을 서로 주고받으며 집단적 일체성을 강화한다.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커지면 타자에 대한 불신은 그에 비례해 증가한다. 더 나아가 타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면 할수록 자신이 속한 집단은 더 안전해지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은 더욱 커진다. 15세기에 매독이 유럽을 휩쓸기 시작했을 때, 그 질병에 대해 일었던 ‘내가 아닌 타자’라는 반응이 고전적 사례를 제공해 준다. “그것은 영국인들에게는 프랑스 천연두였고, 파리인에게는 독일병이었다.” 오늘날에도 이런 반응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제시문 [사]

등이 가려운 때가 있다
 시원하게 긁고 싶지만
 손이 닿지 않는 곳
 그곳은 내 몸에서
 가장 반대편에 있는 곳
 신은 내 몸에
 내가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을 만드셨다
 삶은 종종 그런 것이다,
 지척에 두고서도 닿지 못한다
 나의 처음과 끝을
 한눈으로 보지 못한다
 앞모습만 볼 수 있는 두 개의 어두운 눈으로
 나의 세상은 재단되었다
 손바닥 하나로는
 다 쓸어 주지 못하는
 우주처럼 넓은 내 몸 뒤편엔
 입도 없고 팔과 다리도 없는
 눈먼 내가 살고 있다
 나의 배후에는
 나의 정면과
 한 번도 마주 보지 못한
 내가 살고 있다

/ 문 / 제 / 해 / 설 /

문제 1



출제 의도

1. 문제1은 어떤 대상이나 현상의 판단에 선입견(혹은 편견, 고정 관념)이 개입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그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2. <보기1>에서 사람들은 말이 달릴 때의 실제 모습을 사실대로 그린 그림을 오히려 잘못되었다고 불평한다. 이러한 불평이 선입견 때문이라는 점과 판단에 선입견이 개입하는 이유를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아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시문 [가], [나], [다]는 모두 선입견을 주제로 하고 있다. [다]를 통해 인간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즉 ‘선입견’을 토대로 추론하고 결론을 내린다는 점을 파악하고, [가], [나]에서 인간이 선입견을 갖게 되는 이유를 찾아내면 어렵지 않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4. 문제 해결의 요점은 ㉠에 나타난 사람들의 불평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선입견 때문에 나왔다는 점을 파악하고, 선입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각 제시문에서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5.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독해력, 분석력, 추론력, 문단구성능력, 문장력 등이 요구된다.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table border="1"> <tr> <td colspan="2">과목명: 도덕과</td> <td>관련</td> </tr> <tr> <td>성취기준 1</td> <td>공통 교육과정의 ‘도덕’에서 학습한 도덕적 판단과 실천 능력을 토대로 학생들의 윤리적 인식과 탐구 능력을 심화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현대 생활에서 제기되는 제반 윤리적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td> <td>생활과 윤리</td> </tr> </table>	과목명: 도덕과		관련	성취기준 1	공통 교육과정의 ‘도덕’에서 학습한 도덕적 판단과 실천 능력을 토대로 학생들의 윤리적 인식과 탐구 능력을 심화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현대 생활에서 제기되는 제반 윤리적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생활과 윤리
	과목명: 도덕과		관련				
	성취기준 1	공통 교육과정의 ‘도덕’에서 학습한 도덕적 판단과 실천 능력을 토대로 학생들의 윤리적 인식과 탐구 능력을 심화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현대 생활에서 제기되는 제반 윤리적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생활과 윤리				
	<table border="1"> <tr> <td colspan="2">과목명: 국어과</td> <td>관련</td> </tr> <tr> <td>성취기준 2</td> <td>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독서방법을 적용하여 글을 읽으며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td> <td>국어</td> </tr> </table>	과목명: 국어과		관련	성취기준 2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독서방법을 적용하여 글을 읽으며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국어
	과목명: 국어과		관련				
	성취기준 2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독서방법을 적용하여 글을 읽으며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국어				
<table border="1"> <tr> <td colspan="2">과목명: 국어과</td> <td>관련</td> </tr> <tr> <td>성취기준 3</td> <td>시대와 지역의 한계를 넘어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과 깨달음을 주는 고전의 본질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고전을 통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지식이나 편향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td> <td>고전</td> </tr> </table>	과목명: 국어과		관련	성취기준 3	시대와 지역의 한계를 넘어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과 깨달음을 주는 고전의 본질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고전을 통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지식이나 편향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고전	
과목명: 국어과		관련					
성취기준 3	시대와 지역의 한계를 넘어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과 깨달음을 주는 고전의 본질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고전을 통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지식이나 편향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고전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전	정민 외	해냄에듀	2018	255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과서	2018	136
	국어	박영민 외	비상	2018	178-182
	국어	고형진	동아출판	2020	187



문항 해설

〈보기1〉은 『고전』 교과서에서 뽑은 지문이다. 사람들은 말들이 실제로 달리는 모습과 같이 그린 그림을 보고 오히려 그림이 잘못되었다고 불평한다. 자신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실과 그림이 다르게 그려진 것을 보았을 때 잘못 알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하기보다는 그림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 즉 선입견이나 고정 관념을 기준으로 대상을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인간의 선입견은 때로 올바른 인식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시문 [가]는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발췌한 글로, 인간의 판단에 타인이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실험을 소개하고 있다. 실험을 통해 우리는 처음 판단을 내린 사람의 의견이 ‘맞’이 되어 다른 사람도 그 의견 주위를 맴돌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의견이 합리적 추론이 아니라 타인의 영향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려준다. 다시 말해 집단에 속한 사람은 집단의 선입견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시문 [나]는 『국어』 교과서에 실린 지문으로,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 실험을 소개하고 있다. 이 실험은 인간의 뇌는 들어오는 정보를 빠짐없이 처리하기보다는 적당한 무시와 집중을 통해 선택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험 결과에 기초할 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외면하려는 인간의 심리는 뇌의 선택적 인지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 인식과 생각이 불완전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제시문 [다]는 고정 관념이 사고의 제약 요인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흥미로운 실험을 통해 이 글은 인간은 고정 관념에 기초하여 생각한다는 점, 고정 관념은 새로운 사고를 어렵게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글쓴이는 창의적 사고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주어진 부분은 고정 관념이 인간의 사고에 한계로 작용하기 때문에 생각의 틀을 깨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답안 작성의 요점: 사람들이 불평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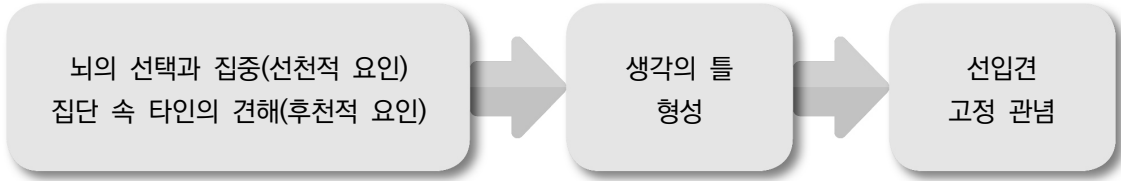
사람들은 실제로 말이 달리는 모습을 사실대로 그린 그림을 간주하고 그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선입견이나 고정 관념)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다)

① 선입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 타인의 견해(가)

② 선입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 뇌의 선택적 인지(나)

⇒ 타인의 견해라는 후천적 요인과 뇌의 선택적 인지라는 선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선입견이 형성되고, 인간은 형성된 생각의 틀인 선입견에 기초하여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

⇒ 그림이 잘못되었다는 불평은 자신의 선입견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는 수용하지 않으려 하고 더 나아가 선입견의 수정에 저항하는 심리의 산물



채점 기준

구분	평가기준	평가 초점
불평한 이유 설명	1	제시문의 내용 요약에 치중했는가, 아니면 제시문을 불평한 이유와 연결하여 설명했는가
	2	제시문 [가], [나], [다]를 선입견(고정 관념)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정확히 이해했는가 여부
	3	<보기>의 ㉠과 같은 반응이 나온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했는가 여부

평가기준	평가 세부 내용
1	제시문의 내용 요약의 비중이 높고,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와 제시문을 사람들이 불평을 한 이유와 연결하여 충분하고 적절하게 설명한 경우의 차이
2	[다] 인간은 선입견(고정 관념)에 따라 생각한다는 것 [가] 선입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1: 타인의 견해 [나] 선입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2: 뇌의 선택적 인지
3	인간은 선입견 혹은 고정 관념에 따라 생각하고 선입견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는 수용하려 하지 않으려는 저항이 그림에 대한 불평으로 나타난 것.

등급	구분 기준
1	평가기준1,2,3를 모두 충족하고 문장표현, 논리구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부분적으로 누락, 오류, 비문 등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2등급)
2	
3	평가기준1,2를 대체로 충족했지만 평가기준3에 대한 설명이 다소 미흡한 경우 (부분적으로 누락, 오류, 비문 등 부족한 정도에 따라 3,4등급 분류)
4	
5	평가기준1,2를 어느 정도 충족하지만 평가기준3의 서술이 부족한 경우
6	평가기준2를 어느 정도 충족하지만 평가기준1,3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부분적으로 누락, 오류, 비문 등 부족한 정도에 따라 6,7등급 분류)
7	
8	평가기준1,2,3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답안지 작성 규정 위반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9등급)
9	

▶ 평가 유의사항

- ① 분량과 내용 면에서 제시문 요약에 치중한 답안과 제시문의 내용을 사람들이 불평한 이유와 연결하여 충분하고 적절하게 설명한 답안에 차이를 두어 평가
 - ⇒ 제시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 답안을 작성하고, 제시문에 대한 설명이 길어져 불평의 이유에 대한 서술이 부족한 경우 낮은 등급 부여
- ② 평가기준1: 각 제시문의 핵심어를 활용했는가, 그리고 제시문을 선입견과 연결하여 설명했는가 여부
 - 각 제시문의 핵심어
 - [가] 닳의 효과: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판단은 타인의 견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
 - [나] 뇌의 인지 방식: 선택과 집중, 적당한 무시,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 [다] 생각의 틀: 고정 관념으로 작용
 - ⇒ 뇌의 선택적 인지라는 선천적 요인과 타인의 견해라는 후천적 요인이 결합하여 생각의 틀을 형성하고, 이것이 고정 관념으로 작용하여 대상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 ③ 평가기준2: 사람들이 '불평'을 한 이유를 선입견(고정 관념)과 연결해서 설명했는가 여부
 - ⇒ 사람들은 사실이 아니라 선입견을 기준으로 대상을 인식한다는 것, 선입견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마음이 불평으로 나타났다는 것
 - ⇒ 선입견, 고정 관념, 편견 중 어떤 용어를 쓰더라도 제시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썼다면 올바른 답으로 평가



예시 답안

<보기>의 ㉠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식과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나서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림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가], [나], [다]를 통해 이런 반응이 나온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가]는 한 사람의 판단 형성에 타인의 견해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닳의 효과' 실험을 통해 집단으로 모인 사람들은 타인의 의견에 동조해 의견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고릴라 실험을 통해 인간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외면하는 성향이 있음을 말해준다. 변화무쌍한 현실 앞에서 뇌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데 이것은 대상의 인식에서 특정 부분만 집중적으로 기억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다]를 통해 인간의 판단은 기존의 생각의 틀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생각의 틀을 깨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고정 관념이 사고 전개를 특정한 방향을 유도한다는 점을 역으로 알려준다.

[가], [나], [다]를 종합해 볼 때, 뇌의 선택적 인지라는 태생적 한계와 타인의 견해라는 후천적 영향의 결합으로 선입견이 형성되고 이것이 인간의 생각을 제약하는 틀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형성된 생각의 틀 때문에 사람들은 선입견을 충족하는 정보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요컨대 ㉠의 반응은 자신의 선입견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는 수용하지 않으려 하고 더 나아가 선입견의 교정에 저항하는 심리의 산물이다.(715자)

문제 2



출제 의도

1. 문제2는 선입견이 집단 광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제시문을 근거로 설득력 있게 논증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선입견과 집단 광기는 표면적으로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특정한 조건에서는 선입견이 집단 광기의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매체의 정보 생산 및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해 볼 것을 요구한다.
2. 답안을 설득력 있게 작성하려면 매체의 정보 생산 및 수용이 선입견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그러한 영향이 집단 광기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시문 [사]의 시는 매체가 선입견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인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고, 동시에 인간은 등을 볼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성찰을 통해 선입견이 집단 광기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4. 매체의 정보 생산 및 수용이란 관점을 중심으로 집단 광기를 설명하고 있는가, 집단 광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아내어 논리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
5.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독해력, 비판적 사고력, 논증능력, 문단구성능력, 문장력 등이 요구된다.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도덕과		관련
	성취기준 1	공통 교육과정의 '도덕'에서 학습한 도덕적 판단과 실천 능력을 토대로 학생들의 윤리적 인식과 탐구 능력을 심화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현대 생활에서 제기되는 제반 윤리적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생활과 윤리
	과목명: 사회과		관련
	성취기준 2	사회,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을 탐구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이를 토대로 현대 사회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사회 문화
	과목명: 국어과		관련
	성취기준 3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으로서의 독서의 특징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독서 방법을 적용하여 글을 읽을 수 있다.	독서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독서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20	199
	사회 문화	신형민 외	비상	2020	110
	생활과 윤리	-	EBS	2020	121
	생활과 윤리	차우규 외	금성출판사	2020	181
	독서	방민호 외	미래엔	2020	114



문항 해설

〈보기 2〉는 『독서』 교과서에 실린 글로,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집단 광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근대 초 유럽에서 나타난 마녀 사냥은 집단 광기의 대표적 예이다. 이 글은 집단 광기를 권력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장과 선동을 통해 특정 집단을 박해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집단 광기가 근대 초에 한정되지 않고 위험에 처한 사회에서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제시문 [라]는 매체가 정보를 생산하는 방식과 소비자의 정보 수용 방식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는 글로 『사회·문화』 교과서의 내용을 변형해서 수록한 글이다. 매체의 정보 생산에는 특정한 관점·가치가 들어가 있다. 같은 장면을 보도해도 관점의 차이에 따라 매우 다르게 현실을 전달한다는 점을 한 언론사의 보도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매체의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선입견을 강화해주는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정보의 생산 및 수용에는 특정한 가치관과 선입견이 작용한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의 글을 변형한 제시문 [마]는 모바일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매체의 특성과 소비자의 수용 방식을 다루고 있다. 기존 미디어와는 달리 새로운 미디어는 일반 이용자들도 얼마든지 미디어 정보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미디어는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과 같은 가치 기준보다 소비자의 관심 자극 여부와 조회수에 더 관심을 쏟는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관심을 자극할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가 쏟아질 수 있다. 새로운 미디어가 생산한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며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지 않으면 허위 혹은 조작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

제시문 [바]는 『생활과 윤리』 교과서를 출제의도에 맞게 변형한 글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인간이 보이는 반응과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위험이 발생하면 인간은 위험의 원인을 타자로 돌리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타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간주되고 집단에서 배척된다. 집단의 구성원은 ‘내가 아닌 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위기에서 벗어나려 한다. 소통의 매체가 크게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도 타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매체의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무비판적으로 수용된다는 점을 마지막 문장은 암시하고 있다.

제시문 [사]는 『독서』 교과서에 실린 서안나의 ‘등’이라는 시이다. 인간은 자신의 뒤를 볼 수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 시는 ‘등’의 비유를 통해 인간은 앞모습만 볼 수 있는 불완전한 눈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자의적으로 재단할 위험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간의 불완전성은 정보를 생산하거나 수용할 때 커다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는 인간은 등을 볼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자신의 한계에 대한 성찰은 그러한 위험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하는 시로도 읽을 수 있다.

▶ **답안 작성의 요점:** 선입견이 집단 광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① 매체의 정보 생산 측면

[라]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 생산

[마] 조회수를 위해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생산

[바] 위기 시 집단 내 구성원들은 타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허위 정보 생산

② 매체의 정보 수용 측면

[라] 매체가 구성한 현실을 의심 없이 수용하는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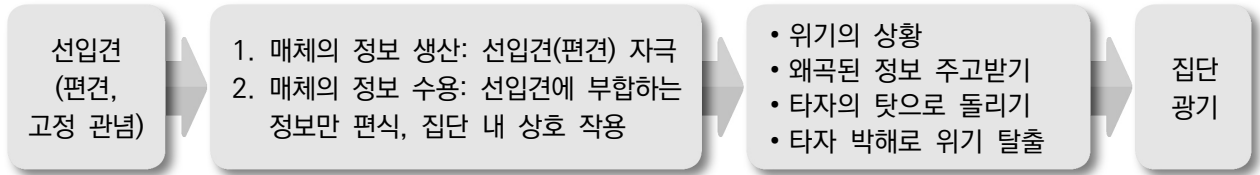
[마] 가짜 뉴스, 왜곡된 정보를 판적 의식 없이 수용, 유통하는 태도

[바] 위기 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타자에 대한 차별 의식을 강화하는 정보를 집단 내에서 공유

③ [사]의 활용: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

매체의 정보 생산자: 자신의 현실 인식의 불완전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편향된 시각에서 정보를 생산

매체의 정보 수용자: 자신의 제한된 관점에만 기초하여 왜곡된 정보, 가짜 뉴스를 진리인 것처럼 수용



채점 기준

구분	평가기준	평가 초점
제시문을 근거로 활용	1	제시문을 집단 광기로의 발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했는가 여부
매체의 정보 생산과 수용	2	선입견이 집단 광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이유를 매체의 정보 생산과 수용의 관점으로 나누어 적절하게 설명했는가 여부
[사]의 활용	3	[사]를 뒷받침 근거로 적절하게 설명·활용했는가 여부

평가기준	평가 세부 내용
1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하는 데에 그친 경우와 제시문을 집단 광기로의 발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한 경우의 구분
2	매체의 정보 생산과 수용의 두 관점에서 발전 가능성을 설명하기 [라] 생산: 선입견에 기초한 편향된 시선을 가지고 정보를 생산 수용: 기존 매체가 구성한 현실을 의심 없이 현실 자체로 받아들이는 태도 [마] 생산: 가짜 뉴스나 왜곡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객관성, 공정성 외면) 수용: 매체의 가짜 뉴스, 왜곡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 무분별하게 유통 [바] 생산: 위기 시 집단의 구성원들은 타자에 대한 차별 의식을 조장하는 정보 생산 수용: 위기 시 책임 회피를 위해 차별 의식을 강화하는 정보만을 주고받음
3	[사]를 광기로의 발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했는가 여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일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음 ⇒ 인식의 불완전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편향된 정보를 생산할 수 있음(생산자) ⇒ 왜곡된 정보, 가짜 뉴스를 진리인 것처럼 수용할 수 있음(수용자)

등급	구분 기준
1	평가기준1,2,3을 모두 충족하고 문장표현, 논리구조에 문제가 없는 경우
2	(부분적으로 누락, 오류, 비문 등 부족한 정도에 따라 1,2등급 분류)
3	평가기준1을 충족했지만 평가기준2,3이 다소 미흡한 경우
4	
5	평가기준1을 대체로 충족했지만 평가기준2,3이 부족한 경우
6	평가기준1,2,3이 다소 미흡하고 평가기준3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7	(부분적으로 누락, 오류, 비문 등 부족한 정도에 따라 6,7등급 분류)
8	평가기준1,2,3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9	(답안지 작성 규정 위반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9등급)

▶ 평가 유의사항

- ① 제시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 설명한 경우, 그리고 제시문의 설명 부분이 너무 많은 분량을 차지 해서 광기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부실한 경우 6등급 이하 부여
- ② 매체의 정보 생산과 수용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집단 광기로의 발전가능성을 논술했는가가 핵심
⇒ 1, 2/3, 4등급의 구분 기준 : 정보의 생산과 수용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했는가 여부
- ③ 제시문 [사]의 활용: 인간의 불완전성이 정보의 생산과 수용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가 여부
 - ※ 집단 광기로의 발전을 막는 방안의 제시는 답안 작성의 선택 사항
 - ⇒ 방안(자신의 인식이 지닌 불완전성에 대한 성찰)을 제시했다고 해서 가점을 주지는 않는다.
 - ⇒ 문제의 핵심은 집단 광기로의 발전 가능성 여부에 대한 논의라는 점, 그리고 800자 내외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집단 광기로의 발전을 막는 방안까지 쓸 경우,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평가한다.



예시 답안

선입견은 때로 타자를 무조건적으로 혐오하고 차별하는 집단 광기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라]~[사]를 통해 발전 과정과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라]에 따르면 인간은 매체가 제공하는 환경을 현실 자체로 받아들인다. 그렇기에 매체가 편향된 선입견에 기초한 정보를 전달할 경우 수용자의 현실 인식은 왜곡되기 쉽다. 제시된 기사는 매체가 편견을 담아 정보를 구성한 전형적 예이다. 편견이 담긴 기사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비합리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본적인 토양이 마련된다.

새로운 매체 환경을 설명하는 [마]는 가짜 정보가 오늘날 더 양산되고 그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요즘은 누구나 정보를 쉽게 생산·유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모바일 매체의 정보 생산자들이 정확성·객관성을 외면한 채 자극적 정보에만 관심을 둘 경우, 그리고 그런 정보만 편식하는 수용자들이 늘어날 경우 편견의 악영향은 더 넓은 범위로 확산될 수 있다.

확대 재생산된 편견은 위기의 상황에서 집단 광기라는 극단적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바]에 의하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타자' 때문에 위협해졌다는 왜곡된 정보에 쉽게 매혹된다. 집단의 구성원들은 타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며 집단적 결속을 다진다. 더 나아가 타자를 불순한 세력이라고 비난함으로써 정체성의 위기와 집단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려 한다. 집단 광기는 이런 과정의 산물이다. [아]가 보여주듯, 인간은 언제든 판단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이러한 성찰이 결여된 '정보의 생산과 수용'은 마녀사냥식의 충동에 언제든 불을 붙일 수 있다.(822자)